

이탤릭체의 문체적 활용: 『소년이 온다』 한영번역 연구*

조의연** · 조숙희***

(동국대 - 서울 · 신한대)

1. 서론

국내에서 사체라고도 불리는 이탤릭 서체는 한글 맞춤법의 사용과 관련된 규범도 없을 뿐 아니라, 소설에서도 그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채식주의자』(*The Vegetarian*)로 영국의 맨부커상(Man Booker International Prize)을 수상한 한강은 자신의 소설에서 이탤릭체를 의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¹⁾ 최근에 이탈리아의 말라파르테(Malaparte) 문학상을 받게 된 그는 또 다른

* 이 논문은 2017년도 동국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다. 익명의 심사자께 고마움을 표하며 발견되는 모든 오류는 필자들의 책임임을 밝힌다.

** 조의연은 주저자이며 ***조숙희는 교신저자이다.

1) 한강의 작품 중 이탤릭체는 『채식주의자』에서 처음 쓰였으며 그 이후 『소년이 온다』, 『바람이 분다, 가라』 등에서 이탤릭체는 지속적으로 쓰이고 있으며 이렇게 쓰인 이탤릭체는 한강의 고유한 문체적 특성으로 논의되고 있다(이혜경·한강·차미령 2013:

소설 『소년이 온다』에서 이 이탤릭체를 작품 전체에 걸쳐 쓰고 있다. 예를 들면, 소설의 첫 장에서 그리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이탤릭체가 쉽게 발견된다. 『소년이 온다』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고 있다.

- (1)
 비가 올 것 같아.
 너는 소리내어 중얼거린다.
 정말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지. (7)

영어 번역텍스트 *Human Acts*에서 이 이탤릭체로 쓰인 표현은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다. 예문(2)는 이에 해당된다.

- (2)
 ‘Looks like rain.’ you mutter to yourself.
 What’ll we do if it really chucks it down? (7)

그러나 아래의 경우가 보여주듯이 원천텍스트에서의 정자체가 번역텍스트에서는 이탤릭체로 전환된 경우도 있다.

- (3)
 ST: ... 성희 언니의 어색한 노동법 강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해. (155)

TT: Then Sung-hee would begin her labour lecture. *And that means ... we are noble.* (162)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어 서체에서 이탤릭체는 언어규범을 갖고 있지 않는 반면에 영어에서는 널리 수용된 언어규범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어 원천 텍스트의 이탤릭체 사용이 영어 번역텍스트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즉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 언어규범에서 이탤릭체의 사용 규범이 서로 다른 경우, 작가와 번역자가 이탤릭체를 자신의

김연수 2014).

원작에서 그리고 해당 작품의 번역텍스트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번역 연구에서 중요하다(Schopp 1996: 2002, Slancarova 1998, Saldanha 2005: 2011, Douglas 2009 등).

이 논문의 3장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지만, 『소년이 온다』 번역텍스트에서 이탤릭체의 출현 횟수는 원작보다 100%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는 번역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를 답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 우리는 『소년이 온다』 원천텍스트 및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이탤릭체 현상을 설명할 것이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한강의 소설에 나타난 이탤릭체는 서술적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이탤릭체 용법에 속한다는 점이다.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narrative emphatic italics)는 외국어를 표기하거나 또는 책의 타이틀을 표시할 때 쓰는 문장부호와와는 다른 것으로 작가의 문체에 속한다. 따라서 번역텍스트에서 이러한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가 양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은 번역자의 문체적 선택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2. 강조 기능의 이탤릭체

원천텍스트 『소년이 온다』에 나타난 이탤릭체는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임을 볼 것이다. 2장에서 우리는 먼저 영어권에서의 이탤릭체 사용에 대해 논의 한 후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경우를 볼 것이다.

2.1 강조의 영어 이탤릭체

영어권의 글쓰기에서 일반적으로 이탤릭체의 사용 범위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문장부호로서의 규범적 기능과 화용적 표지로서 텍스트의 내용을 강조하는 담화적 기능이다. 전자는 책, 잡지, 선박 등의 이름/명칭(titles) 그리고 외국어를 표기할 때 사용되는 경우를 말하며 후자는 정보구조(information structure)에서 초점이 되는 정보를 강조하기 위한 경우나 서술내용의 일부분을 담화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경우이다.²⁾

2) *The Cambridge Grammar of English Language* (Pullum and Huddleston (eds.))

정보구조에서 초점요소가 이탤릭체로 강조되는 경우는 억양 드러냄(tonic prominence)으로도 불리는데 정보적 초점(information focus)이 부여되는 요소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경우나 또는 구어에서 억양 강세가 부여받는 유표적 요소를 문어 텍스트에서 표시하는 경우이다. 아래의 예문(4)가 이를 보여준다.³⁾

(4)

'I shall have to consider the position I put myself in by leaving my wife.'

'You'll also have to remember,' Mrs Wix replied, 'that if you don't look out your wife won't give you time to consider. Her ladyship will leave you.'

위에서 'you(r)'는 워스 여사와 대화하는 남성을 지칭하는데 이탤릭체의 'you'가 쓰이기 전에 4회씩 언급되어 정보구조에서 볼 때 구정보이다. 그러나 자기의 부인을 버리고 떠나는 그러한 남자에게 이야기의 초점을 부여하기 위해 'Her ladyship will leave you'의 이탤릭체의 'you'는 강세의 초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부인이 당신을 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부각시키는 담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정보적 초점 또는 정보적 대조를 서체로 표시하는 정보적 초점을 드러내는 강조 이탤릭체는 영어권 문학에서 대명사나 조동사에 초점이 부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보적 초점 강조 이탤릭체와 달리 문장 또는 단락 단위의 이야기 내용을 강조하기 위하여 문학에서 이탤릭체가 쓰이기도 한다. 더글라스(Douglas 2009: 6)는 이러한 이탤릭체의 기능을 서술적 드러냄(narrative prominence)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이를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라고 부르겠다.

영미문학에서 이를 문학에 활용한 대표적인 작가는 윌리엄 포크너(William Faulkner)인데 그의 작품 *The Sound and the Fury*, *As I Lay Dying* 등에서 이러한 강조 기능의 이탤릭체를 활용하고 있다. *As I Lay Dying*에서 발췌한 예를

(2002)에서는 명칭, 외국어 표시 외에 '강조'(emphasis)를 위해서 이탤릭체가 쓰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논의되는 강조의 두 가지 범주는 더글라스(2009)에 기초하고 있다.

3) 더글라스에서 인용된 이 자료는 James의 *What Maisie Knew* 말뭉치 안의 자료이다.

가지고 이를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경우는 단락 단위의 서술적 강조가 이탤릭체로 부각된 경우이다.

(5)

..... Pa breathes with a quiet, rasping sound, mouthing the snuff against his gums. 'God's will be done, 'he says.' Now I can get them teeth.'

Jewel's hat droops limp about his neck, channelling water onto the soaked tow-sack tied about his shoulders as, ankle-deep in the running ditch, he pries with a slipping tow-by-four, with a piece of rotting log for fulcrum, at the axle, Jewel, I say, she is dead, Jewel, Addie Bundren is dead. (44)

달(Darl)이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는 아버지를 묘사하는 장면이다. 달은 통나무를 하러 떠나서 엄마의 임종을 곁에서 지켜보지 못한 주얼(Jewel)을 상상하며 그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마치 독백이나 하듯이 엄마의 죽음을 모르고 있는 주얼에게 엄마의 죽음을 이야기 하고 있다. 이 내용은 앞서 정자체로 쓰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와 달리 주얼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며 이것은 이탤릭체로 부각되고 있다.⁴⁾ 이러한 이탤릭체는 독자들을 아버지의 장면에서 주얼의 장면으로 전환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아래의 경우는 문장 단위의 서술적 강조를 보여준다.

(6)

'It's them durn women, 'he says.' I made it to balance with her. I made it to her measure and weight.'

If it takes wet boards for folks to fall, it's fixing to be lots of falling before this spell is done.

'you couldn't have help it,' I say. (72)

등장인물 툴(Tull)이 서술자로 등장하는 장면이다. 툴은 사람들이 많이 넘어진

4) 달 또한 주얼과 함께 통나무를 하러 떠났고 엄마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다. 그러나 마치 전지적 관점에서 임종의 상황을 기술하며 특히 주얼에 대한 이야기는 이와 같이 이탤릭체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번햄(Burnham 1975)을 참고하였다.

이유에 대한 키크와 캐쉬의 대화를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한 툴의 생각은 이탤릭체로 강조되며 독자들의 관심을 툴의 생각으로 돌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탤릭체로 서술된 부분은 비록 등장인물 툴이 서술자로 말하지만 작가 포크너가 이 등장인물 뒤에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암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는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독백 또는 대화 등을 다른 부분과 달리 유표적인 시각적 형태로 부각시켜 독자가 이탤릭체로 쓰인 부분을 달리 해석하거나 이해하도록 관심을 고조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2.2에서 우리는 이러한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에서도 쓰이고 있음을 볼 것이다.

2.2 『소년이 온다』 이탤릭체의 기능

『소년이 온다』의 원천텍스트에 나타난 이탤릭체는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에 속한다. 작가 한강의 서술적 이탤릭체는 작가 자신이 ‘감정의 밀도가 차오르면’ ‘정체로 쓸 수 없는’ 경우를 드러내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탤릭체로 전환된 내용은 유표적 형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독자는 이것을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해석하게 된다. 조의연·조숙희(2016)에 따르면,⁵⁾ 한강 이탤릭체의 이면에는 작가의 시선이 존재한다. 즉, 작가가 소설의 서술자 또는 발화자와 동체가 되어 서술자/발화자의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의 목소리’를 드러낼 때, 작가 또한 이 고통의 목소리와 동일체가 되어 ‘감정의 밀도가 차오르게’ 되고 이를 이탤릭체로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탤릭체로 부각된 부분은 독자들에게 특별하게 읽힌다.⁶⁾

아래의 예를 보기로 하자. 소설의 2장에서 주인공 동호는 서술자로서 총에 맞아 쓰러진 친구 정대를 두고 온 자책감에 정대의 누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은 방을 바라보며 독백을 하고 있다.

5) 이하의 논의 내용은 조의연·조숙희(2016)를 참고하였다.

6) 조의연·조숙희(2016)는 『소년이 온다』에 쓰인 이탤릭체의 담화적 기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고통의 밀도가 극대화된 (내면의) 독백이며 다른 하나는 소설의 전지적 서술자에서 등장인물의 시점 전환의 경우이다. 관심있는 독자는 조의연·조숙희를 참고바람.

(7)

지금 정미 누나가 갑자기 대문을 열고 들어 온다면 달려나가 무릎을 꿇을 텐데. 같이 도청 앞으로 가서 정대를 찾자고 할 텐데.

그리고 곧 이어져 동호의 시점에서 정대 누나의 질책이 들리는 듯 정대 누나가 말하는 듯한 (상상의) 질책이 이텔릭체로 쓰이고 있다.

(8)

그러고도 네가 친구냐. 그러고도 네가 사람이야.

정대 누나의 비탄에 가득 찬, 동호를 질책하는 듯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그러나 이는 동호의 내부에서 솟구쳐 나오는 갈등의 소리이다. 한강(2016)은 이와 같이 등장인물의 ‘내적인 싸움’을 담은 그릇으로 이텔릭체를 쓴다. 이텔릭체로 강조된 동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정미 누나의 심한 꾸짖음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 독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동호의 심리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한강의 이와 같은 서술적 강조 이텔릭체는 시적으로 배열되기도 하고 직접 발화의 시적 산문처럼 한 페이지 이상에 걸쳐 나타나기도 한다.⁷⁾ 아래의 경우는 이텔릭체로 표현된 한 등장인물의 발화가 한 단락으로 구성된 경우로 마치 한 편의 시처럼 독자들에게 읽히는 경우이다. 계엄군의 시민학살이 자행된 도청에서 살아남은 은숙은 후일 5.18 광주항쟁의 연극을 객석에서 바라보면서 당시 살해된 기억 속의 동호를 떠올린다. 그러는 중 한 연극자가 마치 자기의 당시 마음을 이야기 하듯 고통에 가득 찬 말을 한다.

(9)

*네가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다.
네가 방수 모포에 싸여 청소차에 실려간 뒤에.
용서할 수 없는 물줄기가 번쩍이며 분수대에서 뿜어져 나온 뒤에.
어디서나 사원의 불빛이 타고 있었다.*

7) 5장 **밤의 눈동자**의 4:00에서 서술적 강조 이텔릭체는 “죽기 위해 그 도시로 갔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의 힘, 분노의 힘.”과 같이 171쪽에서 173쪽에 걸쳐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다.

봄에 피는 꽃들 속에, 눈송이들 속에, 날마다 찾아오는 저녁들 속에.
다 쓴 음료수 병에 네가 꽃은 양초 불꽃들이. (102-3)

대사 속의 ‘너’는 동호로 해석되고 마치 은숙이 말하는 듯 우리 독자들에게 들려온다. 독자들은 연기자와 은숙의 이중의 고통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죽어서 사라진 그러나 장례식을 치르지 못한 동호의 죽음인 까닭에 지금도 살아남아 은숙의 삶은 항상 장례식이 되고 만 것이다. 이렇게 강조된 이탤릭체의 서술적 내용은 은숙의 고통인 동시에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년이 온다』에서 작가 한강은 작가 내면의 격렬한 감정의 싸움을 등장인물의 직접 발화를 통해서 또는 생각을 통해서 드러내는 문학적 장치로 이탤릭체를 활용하고 있다. 『소년이 온다』에 나타난 이탤릭체는 모두 이러한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이므로 우리는 이 논문에서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3. 번역텍스트의 이탤릭체 분석⁸⁾

번역텍스트의 서술적 이탤릭체의 특성을 기술하기 전에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에 나타나는 이탤릭체의 출현횟수를 개괄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원천, 번역 텍스트의 이탤릭체 출현횟수

	한강	데보라 스미스
	『소년이 온다』	<i>Human Acts</i>
출현횟수	87	174

『소년이 온다』에 출현한 이탤릭체는 모두 서술적 이탤릭체에 속한다. 반면에 번역텍스트 *Human Acts*에 출현한 이탤릭체는 명칭이나 외국어를 표현할 때 쓰

8) 국내 연구에서 이탤릭체의 번역에 대한 연구는 김도훈(2011)이 있다. 김도훈은 한영 번역이 아닌 영한번역에서 이탤릭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규범적 측면에서 연구한 것이다.

이는 문장부호로서의 기능을 갖는 것에서부터 서술적 강조 이탤릭에 이르기 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표가 이를 보여준다.

〈표 2〉 원천, 번역텍스트의 이탤릭체 유형과 출현횟수

	『소년이 온다』	
	ST	TT
제목	-	16
외국어	-	4
노랫말	-	3
서술적 강조	87	151
전체	87	174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미권의 글쓰기에서 제목(titles), 노랫말, 그리고 외국어의 이탤릭체 표기는 문장부호로서의 이탤릭체의 규범적 사용 범위에 속한다. 노래 제목 ‘Arirang’, 외국어 ‘omok’과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한다. 한국어에서 이탤릭체는 문장부호로서 사용규범이 없기 때문에 ST에서 이러한 범주의 것들이 이탤릭체로 쓰이지 않았지만 번역텍스트에서는 이탤릭체로 표시되었다.⁹⁾ 흥미로운 것은 서술적 강조에 속하는 이탤릭체의 출현횟수가 원천텍스트에서 보다 번역텍스트에서 약 73%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번역텍스트의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의 출현횟수는 원천텍스트의 이탤릭체의 보존에서 첨가에 이르기까지 각 장에 나타난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서술적 강조의 출현횟수

장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총
ST 출현횟수	15	6	18	9	28	0	11	87
TT 출현횟수	18	9	35	12	44	11	20	149
첨가/생략	4/1	3	18/1	5/2	17/1	11	9	67/5

9) ST에서 책 제목이나 각 장의 제목은 고딕체로 쓰였고 외국어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TT에서 칭호 ‘형’ 바둑 게임인 ‘오목’과 같은 표현은 영어권에서는 외국어로서 로마자로 음성 표기되어 (예를 들어, *hyeong*, *omok*) 이탤릭체로 쓰였고 애국가나 아리랑과 같은 노랫말 또한 이탤릭체로 쓰였다.

<표 3>은 원천텍스트의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는 대부분 번역텍스트에도 보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원천텍스트의 이탤릭체가 번역텍스트에 보존된 비율이 94%에 달하는 것을 볼 때,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는 원문에 충실한 번역자임을 알 수 있다.¹⁰⁾

3.1. 생략

분석 결과, 생략된 부분은 1장에서 한 곳, 3장에서 한 곳, 4장에서는 두 곳, 그리고 5장에서 한 곳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으로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는 작가의 통제 하에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비록 원천텍스트에서 서술적으로 강조되었더라도 생략된 부분은 독자의 관심을 전환시킬 만한 요소가 아닌 것으로 번역가가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번역텍스트 내용의 의미적 일관성(coherence)을 유지하기 위하여 생략된 이탤릭체의 몇 가지 경우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 생략된 부분은 동호가 정대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동호는 자기 집에 세 들어 누나와 함께 사는 친구 정대가 계엄군의 총에 맞아 쓰러진 것을 보고도 충격상황에서 그를 구하지 못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1장에서 전지적 서술자는 이런 동호를 2인칭으로 대상화하여 관련 이야기를 서술한다. 원천텍스트에서는 정대에 대한 기술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동호와 정대의 대화가 이탤릭체로 전환되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번역자는 번역텍스트에서 정대에 대한 마지막 서술내용이 굳이 독자들의 관심을 전환시켜야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아래의 부분이 이를 보여준다.

10) 한강은 한 인터뷰에서 데버러 스미스가 원작에 충실한 번역가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채식주의자’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저는 소설에서 화자의 목소리와 감정, 톤이 아주 중요한데, 그게 잘 표현됐어요. 『소년이 온다』는 5.18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외국인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3부분 정도를 의역했어요. 번역자와 함께 여러 번 메일을 통해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그게 원작을 훼손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01805.html#csidxce9627b5e372d9cb24f2341dc20bfce

(10)

ST: 너와 마당에서 배드민턴을 칠 때, 제가 무슨 국가 대표라고 스매싱만 하는 정대. 천연스럽게 칠판지우개를 책가방에 담던 정대. 이견뿔 하러 가져가 우리 누나 즐라고..... (35)

TT: Jeong-dae Who, when you played badminton together in the yard, was incapable of playing any shot other than a smash, seemingly under the illusion that he was representing the South Korean team in some international match.

Jeong-dae, who nonchalantly slid the blackboard cleaner into his book bag.

‘What’re you taking that for?’

‘To give to my sister.’.. (38)

정대에 대한 동호의 기억을 전지적 서술자가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다. 원천텍스트에서 ‘여태 초등학교같이 키가 안 자란 정대.’ ‘그래서 정미 누나가 빠듯한 형편에도 우유를 배달시켜 먹이는 정대.’라는 정대를 초점으로 하는 일관된 (coherent) 기술을 8회째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원천텍스트에서는 정대에 대한 동호의 기술을 일관되게 9번째 이어간 부분에서는 단락의 전환과 더불어 이탤릭체로 부각되고 있다. 번역텍스트에서는 단락의 구성을 달리하지만 이를 이탤릭체로 보존하지 않고 정대에 대한 기억을 일관되게 기술하고 있고 통사적으로도 ‘Jeong-dae, who.....’의 연속적 관계대명사 절로 응집구조(cohesion)를 형성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번역가는 원천텍스트의 이탤릭체로 전환된 ‘천연스럽게 칠판지우개를 책가방에 담던 정대’이 부분을 의미적 지속성과 통사적 응집구조로 나타내어 앞에 8회 발생한 정대에 대한 회상을 일관되게 서술적 강조 없이 이어가고 있다. 즉, 번역가는 정대가 지우개를 가방에 넣어간 동호의 이 기억 내용은 앞의 지속적인 기억 내용과 동일하게 의미적 일관성을 갖고 해석하고 있다.

이탤릭체가 보존되지 않은 또 다른 경우에도 의미적 일관성에 해당된다. 번역텍스트 4장 **쇠와 피**(*The Prisoner*. 1990)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 해당 부분은 국가 폭력의 대리인들인 계엄군들이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서는 담기 어려운 폭력적 언어로 아래와 같이 말하는 장면들이다. 광주도청에 진입한 계엄군이 손을 들고 항복하러 나온 중학생 소년들에게 총기를 난사한 후 인간을 사물

의 한 덩어리로 보는 잔인함을 드러내고 있다.

(11)

ST: *씨팔, 존나 영화 같지 않냐.* (133)

TT: ... 'As good as a fucking movie, right,? (140)

번역자가 원천텍스트의 강조 이탤릭체를 생략한 것은 계엄군의 입에 담기 어려운 이러한 폭력적 발화를 이탤릭체로 강조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의미적 일관성을 아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있다.

(12)

ST: *뭐가 문제냐? 뭣값을 주면서 사람을 때라는데, 안 썰 이유가 없지 않
야?* (134)

TT: 'What's the problem? They give you money and tell you to
beat someone up, then shy wouldn't you?' (141)

이 부분은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계엄군의 비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원천텍스트 작가는 이를 이탤릭체로 부각시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잔인한 것인가'라는 인간에 대한 회의를 말하고자 한다. 그러나 번역가는 이 두 가지 발화는 모두 국가 폭력을 대리한 가해자들로 이들의 발화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3.2. 첨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번역가는 원저자보다도 73% 이상의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를 첨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가 독자의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를 등장인물의 고통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또는 등장인물의 중요한 성격 또는 가치를 드러내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음을 볼 것이다.

먼저 이탤릭체의 유표적 드러냄을 통하여 등장인물의 발화를 부각시켜 독자로 하여금 등장인물의 고통에 몰입하게 하는 경우를 보기로 하자. 계엄군에

사살되어 죽어 돌아온 막내아들 동호를 가슴 속에 안고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동호의 어머니는 군인 대통령이 내려온다는 말에 온통 모든 것은 고통이었다. 동호의 어머니는 전두환에게 시위하기 위해 나서서 전두환 액자가 깨진 유리조각에 발바닥에 피가 나도 이런 다리를 이끌고 준비해온 현수막을 붙이려고 안간힘을 쓰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13)

그날 해 질 녘에 내 아버지 어깨를 짚고 절름절름 옥상에 올라갔다. 난간에 기대서서 현수막을 길게 내리고 소리 질렀다. 내 아들을 살려내라.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죽이자. 정수리까지 피가 뜨거워지게 소리 질렀다. (133)

원천텍스트의 6장 ‘꽃 핀 쪽’으로는 계엄군에게 동호를 잃은 가슴 아픈 어머니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천텍스트에서는 이텔릭체로 쓰이지 않았지만 모두가 고통과 한과 슬픔으로 가득 차있다. 그러나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는 위의 독백에서 ‘내 아들을 살려내라. 살인마 전두환을 찢어죽이자.’라고 소리치는 부분을 아래와 같이 이텔릭체로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다.

(14)

Around sunset that same day I hobbled up the stairs which led out to the hospital roof, leaning on your father's shoulder for support. I steadied myself against the railing, unfurled the banner and screamed. *Chun Doo-hwan, you murdered my son. Let's tear that bloodthirsty butcher to pieces.* I carried on screaming until (197)

절규하는 어머니의 소리, 얼마나 피가 솟구칠 정도이었으면, 이 이텔릭체에 담긴 ‘정수리까지 피가 뜨거워지게’ 소리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독자들에게 전율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특별히 읽힌다. 한마디로, 이텔릭체로 쓰인 막내아들 동호를 잃은 어머니의 절규는 더욱더 독자들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 경우를 더 보기로 하자. 5.18 광주항쟁을 경험한 은숙이 후일 출판사에 취직하여 보안사 검열 직원에게 불려가 피가 나도록 뺨을 맞은 사건을 전지적 서술자가 이야기하는 장면이다.

(15)

피 묻은 손을 그제야 놀라며 들여다봤다.

어떻게 잊을까, 어둠속에서 그녀는 생각한다.

어떻게 첫 뺨을 잊을까. (70)

원천텍스트에서는 은숙의 생각이 정체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번역자는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그 수모와 고통의 기억을 이탤릭체로 강조하고 있다. 아래의 예가 이를 보여준다.

(16)

..... And only then, upon lowering her hand, did she stare in surprise at her bloodied palm.

How am I going to forget? she wonders, in the darkness.

How can I forget that first slap? (74)

고통으로 가득 찬 그 폭력을 은숙은 잊고 싶지만 잊을 수가 없음을 하소연한다. 번역자는 이를 이탤릭체로 전환하여 독자들에게 은숙의 고통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탤릭체로 독자의 관심을 전환시키는 것은 등장인물들의 고통을 부각시키는 경우에만 쓰이지 않았다.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도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5.18 광주항쟁에서 동호가 만난 누나 은숙은 항쟁 이후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일을 하게 된다. 은숙이 교정을 본 번역 원고를 건네준 번역자는 정보부의 수배 대상자였는데 이 사람을 체포하려는 사복경찰은 은숙에게 이 사람의 행방지에 대한 추궁을 한다. 이 과정에서 은숙은 욕설과 협박으로 위협을 당하며 결국은 뺨에 구타를 당한다. 아래는 정보부로 끌려가서 ‘뺨을 일곱 차례’ 계속 구타당하기 전 번역자를 만났을 때의 이야기이다.

(17)

그녀는 보리차 잔에서 탁자로 번져 나온 물기를 냅킨으로 닦은 뒤 교정지

뭉음을 꺼냈다. 맞은편에 앉은 번역자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 탁자 위에 놓았다. 천천히 보세요, 선생님. 그는 꼼꼼히, 거의 한 시간에 걸쳐 원고를 훑어보았다. (68)

이 이야기 전에 정보부 직원이 ‘취도 새도 모르게 죽기 싫으면 내말 들어. 그 새끼 어딴.’라며 은숙을 때리며 협박하고 있는 장면이 이야기되고 있다. 은숙의 발화 ‘천천히 보세요, 선생님.’은 강성 자유 직접화법으로 친절하고 배려심 있는 은숙의 성격을 보여준다. 원천텍스트에서 이는 정체로 다른 이야기 내용과 다루어지고 있다. 작가 한강에게 이는 ‘내면의 갈등’이 분출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나 이 은숙의 발화가 번역텍스트에서 이텔릭체로 전환되고 있다.

(18)

She used a napkin to blot away the wet patch left by the cup of barley tea, then placed the proofs on the table, facing the translator, *Take your time, sir.*he went through the manuscript..... took almost an hour.....

이텔릭체로 전환된 은숙의 발화는 ‘*Take your time, sir*’로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 독자들은 은숙의 직접 발화임을 쉽게 인지하게 되며 은숙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그녀의 성격에 독자들의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이에 속하는 예시를 하나 더 보기로 하자. 소설 5장의 초점 화자인 선주는 5.18 광주항쟁 이전에 성희 언니와 미싱사로 일하며 방직 피복노조 소모임을 같이 한 일을 회상한다. 아래 (19)는 은숙이 당시에 성희 언니가 어린 미싱사들에게 노동법을 강의하던 때를 회상하는 장면이다.

(19)

... 성희 언니의 어색한 노동법 강의를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해. 말문이 막히거나 기억이 얼른 안 날 때마다 성희 언니는 추임새처럼 그 말을 넣었다. (155)

원천텍스트에서는 은숙의 시점에서 기억이 회상되고 있으며 회상되는 서술 장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해.’라는 성희 언니의 직접 발화가 정체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아래의 번역텍스트가 보여주듯이 원천텍스트의 성희의 발

화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해.’는 이탤릭체로 쓰여서 시각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20)

Then Sung-hee would begin her labour lecture. *And that means ... we are noble.* Seong-hee wasn't natural orator, and whenever she lost her train of thought or couldn't quite recall the word she'd wanted she would use that phrase as a kind of stop-gap. (162)

성희 언니의 ‘우리는 고귀해.’라는 말은 그녀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인간으로서 받아야 하는 기본 권리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해 왔던가를 보여준다. 특히 성희의 ‘우리는 고귀해.’라는 말이 번역텍스트에서 이탤릭체로 전환되어 인간에 대한 성희의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번역가는 인간의 고귀함을 이탤릭체로 전환하여 강조하고 있다.¹¹⁾

우리는 지금까지 번역텍스트에서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가 첨가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번역텍스트에서 번역자는 등장인물들의 기억이나 말이 고통에 가득 차서 내면의 갈등, 아픔을 극대화시키고자 할 때 이를 이탤릭체에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번역자가 강조하고 싶은 등장인물의 성격과 사람에 대한 가치가 특별히 독자들에게 읽히도록 이탤릭체는 번역텍스트에서 활용되고 있다.

4. 논의 및 결론

번역학 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 된다.

11) 성희 언니의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해.’ 이 말은 은숙에게 반복적으로 회상되는 성희 언니에 대한 기억이다. 원천텍스트에서도 나중에 이 기억이 다시 회상될 때 아래와 같이 이탤릭체로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이 또한 번역텍스트에서 보존되고 있다.

.....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막연히 성희 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귀하니까.* (156)

원천텍스트의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의 출현횟수에 비해 73%의 증가를 보인 번역텍스트에서의 출현횟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증가된 출현횟수는 명시화 또는 규범화와 같은 보편적 번역 원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번역자 개인의 문체적 특성으로 볼 것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텍스트에 증가된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는 비 번역 영어텍스트의 특성을 반영한 것인지 보기 위하여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가 비 번역 영어텍스트에서 어떤 출현 분포를 보이는지 보기로 하자.

영어와 이탈리아어 두 언어에서 발생하는 정보적 초점 강제 이탤릭체의 번역 현상을 연구한 더글라스(Douglas 2009)는 비 번역 영어 텍스트에서 발생한 이탤릭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 번역 영어 텍스트로 쓰인 제임스(James 1973)와 오코너(O'Connor 1990) 두 영어 작가의 글에는 아래와 같이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가 거의 쓰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¹²⁾

<표 4> 비 번역 영어 텍스트의 강조 이탤릭체 출현횟수

	제임스	오코너
정보적 초점 이탤릭체	374	51
서술적 이탤릭체	-	1

<표 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강조 이탤릭체는 주로 정보적 초점 이탤릭체에 속한다. 정보적 초점 강제 이탤릭체는 구어의 강세요소를 이탤릭체로 바꾸거나 대조의 요소를 강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작가들은 이러한 영어의 구어적 강세 요소를 문어 텍스트에 시각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이탤릭체를 사용하는데 이는 영어의 언어규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위의 두 작가의 영어 작품에서 거의 0%에 가까운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의 출현빈도는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의 사용이 언어 규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작가 개인의 문체적 특성임을 유추할 수 있다.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텍스트에 나타난 서술적 이탤릭체의 출현횟수는 총 151회이며 정보적 초점 이탤릭체는 0회이다. 즉 언어규범에 의한 정보적 초점

12) <표 4>는 더글라스(2009)의 <표 2>의 내용에 기초한 것이다.

이탤릭체는 비 번역 영어 텍스트가 보이는 현상과 반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어 원천 텍스트의 영향의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텍스트의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 현상은 도착텍스트의 언어적 규범과 무관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영어 글쓰기에서 강조 이탤릭체는 가능한 한 쓰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¹³⁾ 규범화(normalization)의 측면에서 보면 번역텍스트의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의 활용은 원천텍스트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나 데보라 스미스의 서술적 이탤릭체의 빈번한 활용은 규범화가 예측하는 것과 반대되어 발생하고 있다.

결국 데보라 스미스의 번역텍스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는 원천텍스트의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의 특성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번역자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즉,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가 영미소설에서 특정한 작가의 문체적 특징인 것과 같이 번역자 데보라 스미스는 원천텍스트 『소년이 온다』 작가 한강의 문체적 요소를 보존하며 자신의 번역텍스트 *Human Acts*에서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를 번역자 자신의 문체로 발전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한강의 『소년이 온다』의 한영번역에 나타난 이탤릭체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비록 이탤릭체의 사용이 한국의 소설 글쓰기에서 규범화되지 않았지만 작가 한강의 문체적 특성이기 때문에 이는 연구의 대상이다. 또한 번역연구의 관점에서 볼 때, 비 번역 영어 텍스트에서 이탤릭체의 사용이 규범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번역텍스트에서 한국어 원천 텍스트의 문체적 이탤릭체가 어떻게 번역텍스트에 반영되고 있는가는 연구가 필요했다. 그 결과 두 텍스트에서 주된 이탤릭체의 문체적 특성은 서술적 강조 이탤릭체로 밝혀졌으며 원천텍스트와 번역텍스트 모두 작가와 번역자가 자신들의 문체로 등장인물의 내적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규범적인 측면에서 보면, 소설에서 이탤릭체의 사용은 제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피하도록 되어있다. 파울러(Fowler 1965: 313)는 ‘글자체를 바꾸어 독자들이 이에 주의를 기울이게 권하는 것은 지식을 갖춘 독자들을 모독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고 글쓰기를 훈련받는 예비 저자들에게 말한다. 또한, 소설 글쓰기 웹사이트 가운데 하나인 Rewrite, Reword, Rework는 이탤릭체의 사용 관련 규범(Fiction Rules for Italics)으로 ‘가능하면 사용을 피하십시오.’라고 언급되고 있다.

참고문헌

- 김도훈 (2011) 「영어 이탤릭체(italics)의 기능 및 영한 번역 전략」, 『통번역학 연구』 14(2): 53-70.
- 김연수 (2014) 「한강과의 대화」, 『창작과 비평』 165: 311-332.
- 이혜경·한강·차미령 (2013) 「간절하게, 근원과 운명을 향하여」, 『문학동네』 74: 102-140.
- 조의연·조숙희 (2016) 「『소년이 온다』 이탤릭체의 담화적 특성: 한강과 데버러 스미스」, 『영어권문화연구』 9(3): 257-274.
- 한강 (2007) 『채식주의자』, 경기: 창비.
- Burnham, James (1975) 'Trying to say' in John Bassett (ed.) *William Faulkner: The Critical Heritage*, New York: Routledge.
- Douglas, Peter (2009) 'Encoding intonation: The use of italics and the challenges for translation' in Michaela Mahlberg, Victoria González-Díaz and Catherine Smith, (eds) *Proceedings of the Corpus Linguistics Conference (CL2009)* (Liverpool, 20-23 July 2009). Visited 12 May 2011, Available at <<http://ucrel.lancs.ac.uk/publicatuians/cl2009/>>.
- Faulkner, William (1963) *As I Lay Dying*, Harmondsworth: Penguin.
- Fowler, Henry Watson (1965) *A Dictionary of Modern English Usage*, Oxford: Clarendon.
- James, Henry (1973) *What Maisie Knew*, London: Penguin.
- López Folgado, Vicenta (2000) 'The Role of *Italics* in Translation; A Pragmatic View' in Maria Pilar Navarro Errasti, Rosa Lorés Sans, Silvia Murillo Omat, et al., (eds) *Transcultural Communication: Pragmalinguistic Aspects*, Zaragoza: Anubar Ediciones, 91-98.
- O'Connor, Flannery (1990) *The Complete Stories*, London: Faber and Faber.
- Pullum, Geoffrey and Rodney Huddleston (eds) (2002) *The Cambridg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 Saldanha, Gabriela (2005) 'Style of Translation: An Exploration of Stylistic Patterns in the Translation of Magareet Jull Costa and Peter Bush'.

Doctoral thesis unpublished, Dublin: Dublin City University.

Saldanha, Gabriela (2011) 'Style of Translation: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The Translator* 17(1): 25-50.

Schopp, Jurgen F. (1996) 'The Typographic Competence of the Translator: Visual Text Design and Desktop Publishing,' *Proceedings of the XIV FIT World Congress*, Melbourne, Australia, 189-193.

Schopp, Jurgen F. (2002) 'Typography and Layout as a Translator Problem,' *Proceedings of the XVI FIT World Congress*, Vancouver, Canada, 189-193.

Slancarova, Dana (1998) *On the Use of Italics in English and Czech*, Unpublished thesis, Department of English and American Studies of the Faculty of Arts, Masaryk University, Brno.

인터넷자료: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5/24/2016052401805.html#csidxce9627b52d9e37cb24f2341dc20bfce

분석텍스트:

한강 (2014) 『소년이 온다』, 경기: 창비.

Smith, Deborah (2016) *Human Acts*, London: Portobello Books.

[Abstract]

Translator's Stylistic Choice of *Italics*:

A Study of Korean-to-English Translation of 『소년이 온다』 (*soyon-i on-ta*)

Cho, Euiyon · Cho, Sookhee
(Dongguk Univ., Seoul · Shinhan Univ.)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ain the phenomenon of italics used in the source text 『소년이 온다』 (*soyon-i on-ta*) and its translated English text *Human Acts* by Deborah Smith. We have found that italics in source text is to emphasize narrative information. The author Han Kang uses them as a literary device to highlight the pain of the victims or the oppressed in her novel although italics are rarely used in Korean writings. In English narratives, although the use of italics is conventionalized as a punctuation mark, there is an additional function which is called 'emphasis' to visually highlight either informational focused item or narratives to shift the reader's attention to the marked information. In the translated text *Human Acts*, the use of narrative emphatic italics is found to have been increased in number from 87 tokens to 151 tokens. We have argued that the increased numbers of italics in Deborah Smith is not due to normalization but the translator's motivation to further highlight the painful voices of characters to leave the translator's stylistic trait in her translation. In short, the increased use of narrative emphatic italics in *Human Acts* is ascribed to the translator's own style influenced by the source text writer's own preference in making use of italics to signal the characters' deep pains incurred by the government's military suppression of Kwangjoo people.

▶ Key Words: narrative emphatic italics, translator's style, motivation, normalization, discourse mark

조의연

동국대 - 서울

choey@dongguk.edu

관심분야: 화용론, 번역학

조숙희

신한대

shcho@shinhan.ac.kr

관심분야: 영어교육, 번역학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3일